

고은 불교 대하소설

다시 꿈속의 스승

인담은 거의 뜬눈으로 밤을 새운 다음 날에도 여는 때처럼 새벽 예불부터 하나도 빠뜨리는 것이 없었다. 이른 아침의 조촐한 죽 공양은 물론이거니와 식전 식후의 선정(禪定)도 그대로였다.

먼동이 트고 난 뒤의 예불이아말로 이 삼이 이어가는 영속적인 축제이기도 하였다.

인담은 오래된 세근(斤)짜리 목탁을 부겨울줄도 모르고 치면서 삼기승을 한 바퀴 도는 것이었다.

바로 그때만이 인담의 독신생활에서는 입이 열렸던 때이기도 하였다.

또한 그것은 저녁 예불과 함께 딱 두 번동안 몸속의 기운을 밖으로 내보내는 입의 운동이기도 하였다.

그가 어린 시절의 행자(行者)당시부터 시작한 도량승(道場僧)이었다. 돌아다보건대 그가 흥산 무량사(無量寺)에서 사미살계(沙彌十戒)를 받을 때 교수사(教授師) 한 사람의 계사(戒師)뿐이었다.

이른바 3사7중(三師七衆) 따위의 엄숙한 계단(戒壇)에 나선 것도 아니었다. 그러니까 인담의 행자생활 6년째 되는 해였다.

무량사에는 노승 석지담(釋志堂)이 포장교할 허리를 괴 도량 여기저기를 쓸 만큼 혼자 살림살이를 꾸려가는데 익숙하였다. 누구 하나 오래 발붙여 있을 수 없게 차가웠다.

바로 그런 늙은이 석지담과 6년을 살았던 행자인지라 어지간한 소년이었었던 것인데 "스님 지도 가사를 수하고 싶습니다" 하고 말하면 "무엇 때문에 젊은 가사는 걸치려하느냐. 저 가를 단종 새빨간 것을 다 네 가사로 삼으면 될 것"이라는 통명스러운 거절이 있을 따름이었다.

그런데 그 가을이 지난 뒤 갑자기 큰 눈이 퍼부어 사람의 키 다섯척(尺)에 가까이 쌓였는데 그때 무량사 2층 극락전 뒤에서 어떤 비명이 들렸던 것이다. 행자가 눈을 치우다가 가보니 한 누더기 삭발승이 방금 벼랑 위에서 쏟아지는 눈사태에 파묻혀 있다가 그 눈더미 속을 빠져나오는 중이었다.

"거기 기만히 계세요. 제가 눈을 치워 아합니다. 그 쪽에서 눈더미를 건드리면 더 큰 눈더미가 덮치게 되어 있습니다."

"..."

반시각이나 지나서야 그 누더기 객승은 눈더미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

"고맙습니다. 네 덕택으로 내 목숨이 구려 눈 모양 아직 붙어있게 되었구나."

"어디서 오는 길입니까?"

"이 절 뒤의 매월대(梅月臺) 밑에서 되는데 먹고 살다가 내려오는 길이다."

"..."

"네가 여기 온 것은 왜 오래될 터인데 그동안 공부는 좀 하였느냐?"

그 누더기는 언제 다급하게 비명을 질러왔느냐는 듯이 전혀 다른데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었다.

"어떻게 아세요? 제가 여기 와있는 것을."

"이곳 극락전 아미타불이아 이승의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나 나는 저 뒷산을 뒤지고 다니면서도 이 극락전 일이라면 뻔히 알고 있단다. 그래 늙은이는 아직 키랑키랑하지?"

여기서 늙은이란 꾸지 석지담을 말하는 것이다.

"네"

하고 대답하였다.

"네 아직 중이 안되었느냐?"

"네"

하고 대답하였다.

"그놈의 늙은이가 너를 상좌로 삼지 않았단 말이지?"

"..."

"좋다. 그렇다면 네 은사(恩師)는 가섭존자(迦葉尊者)로 하고 내가 교수사(教授師)를 겸하여 사미계를 수계(授戒)하마. 그밖의 증명(證明)이아 산문 밖 부도 놈들이 말으면 되지"

하고 대답하였다.

"그놈의 늙은이가 너를 상좌로 삼지 않았단 말이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새 이름 인담을 받은 행자는 그의 팔뚝의 한 군데가 타고 있는 뜨거움에도 불구하고 제법 큰소리로 물어보았다. 불단 뒤에서 그 소리에 놀랐는지 쥐 한두 마리가 날개질 달아나는 것이었다.

"흠 증명법사들이 떠나시는군" 하고 누더기가 웃었다. 그런 다음 어둑어둑한 법당 안에서 훗날 불발을 뒤로 한 누더기 계사(戒師)는 무척이나 흐릿한 감흥을 나타내고 있었다.

"잠차...너는 입심(入室)할 때가 있으리라. 그때야 너에게는 은사가 있게 되어 너는 그의 제자가 될 것이다. 그때까지는 이 절을 떠나 혼자 여기저기 흘러가거라. 어찌 내가 이제부터 구름이 날



10



그림 · 최규일

실감을 볼 수 없었다. 마치 마음으로 사모하는 사내가 한밤중에 나타나 그윽한 잠자리를 함께하고 유령처럼 사라진 뒤 허망하기만 한 여자의 처지와 다를 바 없었다. 하지만 인담에게는 새로운 의미가 생기기도 하는 것이었다.

"이제 나는 이 절의 주자에게 밥 얻어먹는 행자가 아니다. 나 혼자 일어난 출세간(出世間)의 장부(丈夫)가 되었다. 나도 떠나야겠다."

그런 생각 속의 절망감과 함께 그는

사람으로 만들었다.

일체의 거룩한 경계는 바로 청정한 것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다. 법신(法身)의 보이지 않는 세계의 진수(眞髓)도 바로 청정세계 그 자체이다. 그러므로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 아니던가. 그 법신으로 말미암아 원만한 중도(中道)의 보신(報身)이 가능하고 천백억개의 화신으로 나타나 천백억개의 중생과 함께 있는 화신(化身)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던가.

그렇다면 인담은 김시습의 화신(化身)한테서 계를 받았단 말인가. 어쨌든 그는 인담이라는 중이 되었다. "...눈이 내리기 전에 가겠다. 잘 지내보아라. 이 세상이란 수레바퀴 굴리며 한번 지내볼 만한 곳이니라." ...그런 인담에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한결같은 것이 바로 새벽과 저녁의 도량승이었다.

“네 팔뚝의 살점이 타는 동안 참회와 서원을 심어라”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그 누더기 삭발승이 허리를 굽고 극락전 안으로 들어갔다. 눈에 파묻혀 있었던 터라 누더기에게는 눈조각이 아직 딱딱하지 못하였었다.

그가 법당 마루바닥에 눈조각들을 떨어뜨리며 말하였다.

“이제부터 네 이름은 달라진다.”

“..."

그는 너무나 갑작스럽게 당하는 일이라 어이없어하는 행자에게 심계의 뜻은 가르치지도 않았고 아미타불 불단(佛壇) 위에 놓인 촛대에서 초 한 토막을 잘라내고 그 초의 심지를 행자의 팔뚝에 눌러서 고정시킨 뒤 그 심지에 부싯불 붙을 켜 붙이는 것이었다. 말하자면 연비(燃臂)였다.

“네 팔뚝의 살점이 타는 동안 그 작은 아들과 아기 울음 소리같은 따거운 가운데 네 참회와 서원을 심어라. 앞으로 네 법명(法名)은 인담(仁談)이니라.”

“스님은 누구십니까?”

“아니다. 다시는 너한테 실려달라고 소리 지르는 일은 없을 것이다. 나에게 눈이 올 때가 가장 좋은 때란다. 개처럼.”

“스님 당호(堂號)를 알고 싶습니다.”

“무량사 뒷산에는 온통 매월당 김시습(梅月堂 金時習)이란 눈이 여기저기 오줌 싸고 똥 쓴 곳이라 그들의 이름밖에 없게 되었다. 굳이 내 이름을 알고 싶거든 설잠(雪岑)이라 하거라”

“설잠! 설잠!”

인담이 그 설잠이란 이름이 다음이던 김시습의 것으로 안 것은 그로부터 훨씬 뒤의 일이었다.

그렇다면 인담은 김시습의 화신(化身)한테서 계를 받았단 말인가.

어쨌든 그는 인담이라는 중이 되었다.

“...눈이 내리기 전에 가겠다. 잘 지내보아라. 이 세상이란 수레바퀴 굴리며 한번 지내볼 만한 곳이니라.”

인담은 어릴바를 모르고 총총히 눈썹인 무량사 뒤로 사라지는 누더기 스님

무량사 뒷산중간의 세월을 마감하기로 작정하였다.그도 눈썹인 길을 폭죽 빠지며 걸어서 도량 밖으로 나갔다.

일주된 밖의 부도들과 비(碑)들이 눈을 쓰고 서 있었다. 인담의 증명법사인 셈이었다.

이제 무량사에는 석지담 밖에 없다. 그곳의 다량 청성모 그리고 절안의 쥐와 들쥐 따위와 함께.

이렇게 해서 사미승이 되었던 인담이었으므로 그의 계사가 초연설적이었던 것처럼 그의 은사도 오죽하면 몇백년전의 사람이었겠는가.

기구하기는 그보다 더할 데가 없을 것 같았다.

그런 인담에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한결같은 것이 바로 새벽과 저녁의 도량승이었다.

하루내내 입에 한 미디 말을 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도량을 청정(淸淨)하게 하는 지극한 마음을 일으켰다.그 마음은 언제나 그 자신을 새로운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거룩한 청정도량을 노래할 입 자체를 청정하게 하는 일이 앞서야 하는 것이다. 일체의 입을 청정하게 씻어내는 진언(眞言)이 있어야만 한다.

이 새벽 어둠 속에서 일체만상을 깨우는 도량승의 첫번째 진언으로 어리석은 도깨비조차 그것을 알아듣고 아이우하고 벌떡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도량석(道場石)에 이어 사방찬(四方讚)과 도량찬(道場讚)에 이르는 짧지 않은 세간의 송주(誦呪)가 다하면 비로소 세상의 모든 생명체들은 마음을 가다듬기 시작한다. 바로 이와 함께 인담의 입선(入禪)도 비롯되는 것이다.

도량승 가운데 사방찬이 있음은 바로 석가모니부처님 당시부터의 외식을 말해 주고 있다. 부처님이 죽림정사에 머물고 있을 때 바로 이곳나라 바이살리에서 극심한 가뭄과 괴질의 전염으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다.

그래서 바라문의 제자와 자이나교 및

다른 교파들의 수행승에 의한 기도로서 그 재난을 이겨내려했으나 실패한 뒤 마지막으로 석가모니부처님이 초청되어갔던 것이다.

중아함경(中阿含經)은 석가모니부처님이 부처를 이룬 뒤 5년간의 이 일을 그 초기의 사실담게 말하고 있다. “강가 강을 건너 30리쯤 지나 바이살리땅을 밟자 모든 열병의 독기가 맑아지며 병의 기운은 힘을 잃기 시작하였다.”

그때 부처님은 그 일대에 맑은 물을 뿌림으로서 동서남북 4방에 뿌리는 것으로 길이 평안하기에 이른다는 오늘의 사방찬을 남게 한 것이다.

인담의 수행은 바로 이 청정법계에 대한 중단없는 도량승으로부터 시작하였다. 우너도 그런 인담의 뒤를 따라 심을 들고 있었다.

이유없이 아프거나 되는일이 없거든 수맥을 막아라!!

현대인의 질병, 그 큰원인이 수맥(水脈)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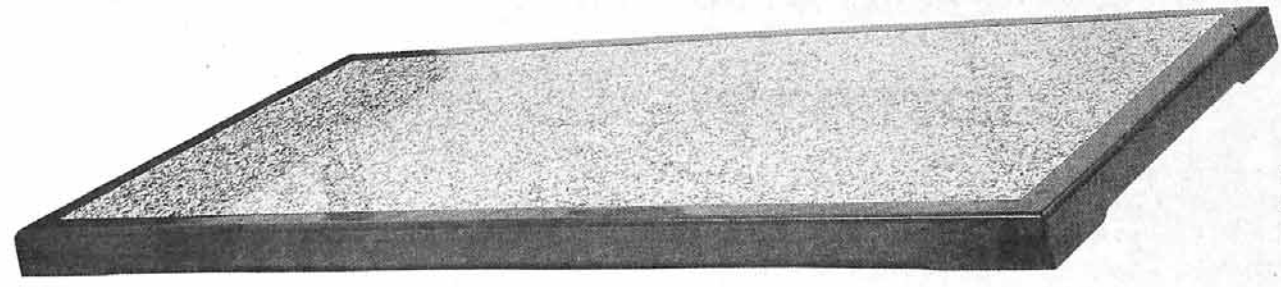
수맥은 과학입니다

수맥의 기(氣)는 인체의 조화를 깨뜨리기 때문에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현대인은 이 수맥과 콘크리트벽, 바닥에서 뿜어져 나오는 방사체와 독소로 인하여 건강을 잃고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원격외선 온돌침대(파워스톤)은 이러한 수맥을 방지하고 실내의 유해한 공기를 정화하여 편안한 숙면과 건강을 지켜드리는 돌침질기입니다.

임상실험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 대전대학교·원광대학교 양 부속 한방병원의 임상실험 결과가 효과를 입증합니다.
- 자신있게 권해드리는 이삭 파워스톤은 원격외선을 이용한 점질효과로
- 혈액순환의 촉진 및 신진대사의 활성화
- 중증의 경감작용과 조직의 재생작용으로
- 신경통·류머티스·관절염·디스크·고혈압·당뇨병·중풍·냉·대하증·산후조리·불면증·교통신고유류증 등 각종 성인병과 부인병에 탁월한 효과가 있으며
- 피로회복·비만·미용에도 뛰어난 효과가 있습니다.
- 문의하시는 분께 임상실험자료와 수맥관련 책자를 무료로 무송해 드립니다.



(규격) : 200×104×8
200×138×80



• 실용신안특허 : 제068614호
• 상표등록 : 제245216호
판매원 민영실업
(02)208-7974~5
부산 (051)412-9351

인류의 건강을 추구하는

이삭産業株式會社

※전기용품 EM이력화·전자파 장애 시험필

품질보증

전자파장애시험필

EMI

공인인증